

기는 마찬가지로'라는 다소 고지식한 사고 방식이 바뀌지 않더라는 것이다. 오랜 주저 끝에 마침내 사표를 냈다.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는 데는 제주 출신 남자 친구의 도움이 컸다. 처음엔 '백수가 되려고 용순다'며 우스갯 소리를 하더니, "더 늦으면 빼도박도 못한다"면서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용기를 주었다. 지금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았던 이씨의 심정과 딱 맞아 떨어졌다.

그후 이씨는 대학교 선·후배 5명과 만든 4명 남짓의 조그만 출판사 '가지않은 길'에 다니기 시작했다. 월급은 이전보다 60%가 줄어들었다. 힘에 부쳐 지금까지 붙던 적금도 중도 해약했다. 퇴근은 오후 9시를 넘기기 일쑤다.

그래도 하고 싶었던 '좋은' 책 만드느라 힘든 줄 모른다. 첫 책은 내년 1월에 나온다. 내용은 한국계 미국인 1.5세대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이다.

조준상 기자

영구-범생이 '갈등의 자식들'

96.11.8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 '영구'

중상층 아파트의 모범생 '범생이'

그들사이엔 고층아파트보다 높은 적대감이 쌓여있다.

10대 중반 같은 또래인 그들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둔 한 동네 친구를 서로 '영구'와 '범생이'라고 부른다.

'영구'란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에게 붙여진 이름이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말쑥한 피우는 문제청소년들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것이다.

영구도 길 건너 중상층 아파트의 아이들에게 이름을 주었다. '범생이'다.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집도 잘 사는 이른바 모범생을 비꼰 말이다. 같은 지구의 아파트에 살고 또 같은 학교에 다니지만 '영구'와 '범생이'는 서로를 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강남의 수서와 일원동, 강서구 가양·등촌·방화동, 노원구 중계동, 강북구 번동, 하늘을 찌를듯 솟구친 고층아파트가 즐비

하다. 겉보기엔 '잘 사는' 사람들의 품나는 주거지다.

그러나 그곳 어딘가엔 항상 생활보호대상자 등 극빈층이 모여 사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블랙홀처럼 감춰져 있다. '영구'들은 그곳에서 산다.

한 동네이지만 중상류층과 극빈층은 물과 기름처럼 따로 살고 또 가능한 한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 한다. 영구네 건너편에서는 어딜 가나 "임대아파트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거나 "착한 내 아이가 임대아파트의 문제청소년들에게 물들어 공부를 게을리하고 탈선한다"는 따위의 푸념이 어지럽게 오간다.

에도 없다. 3단지로 표시된 자리에는 대청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어떻게 된 것일까.

관할 일원2동사무소 관계자는 "6개월 전쯤 주민들의 요구로 도시

개발대치아파트 3단지의 명칭을 대청아파트로 바꿨다"고 말했다. "도시개발아파트는 이미지가 좋지 않아 불이익이 많다"는 이유로 아파트 이름을 바꿔달라는 주민의 요청에 따랐다는 것이다.

1단지는 영구임대주택단지, 2단지는 중상층, 대청아파트에는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곳 1단지에 살고 있는 영식(14·가명)이는 얼마 전 3단지에 사는 같은

이런 피해의식이 커갈수록 영구네 쪽에선 상대적 박탈감과 낙담이 깊어진다. 박탈감과 피해의식이 부딪쳐 적대감으로 변하고 적대감은 언제 범람할지 모르는 강이 되어 둘 사이를 흐른다.

지하철 3호선 대청역, 역 구내의 주변지역 안내지도를 보면 도시개발(대치)아파트 1, 2, 3단지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그러나 막상 역을 빠져 나와보면 도시개발아파트 1단지와 2단지는 있지만 3단지는 어디

□ 교장선생님의 하소연

'영구' 없는 학교로 전학요구 일반아파트 학부모에 유감

서울의 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7중학교. 전체 학생 1천4백명중 60%가 이른바 '영구족'이다.

"첫 입학식을 한 다음날 '그 학교 학생 5명이 본드를 분 혐의로 연행됐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날 이후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번 꼴로 경찰서를 들락거려야 했지요."

이 학교의 첫 교장으로 부임해 올해로 4년째를 맞고 있는 홍씨(55)는 "솔직히 그동안 교육자로서의 한계를 느꼈다"며 이렇게 털어놨다.

그는 "그동안 일삼아 가출하고 본드나 가스를 마시는 아이들을 학칙대로 중징계하기도 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설득해보기도 했지만 아이들의 비행과 탈선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학부모들의 태도는 그를 더욱 곤란하게 했다. 학기초만 되면 이 학교에 자녀가 배정된 일반아파트 학부모들이 "아이를 전학시켜 달

라"며 아우성을 치는 바람에 이들을 설득하느라 한바탕 곤욕을 치러야 했다. 심지어 임대아파트에 사는 학부모들조차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기는 방법으로 자식을 영구임대주택단지와 관계없는 학교로 전학시키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러한 왜곡된 교육 현실에 대해 그는 "내 딸 내 아들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이기주의가 이곳 아이들의 가슴을 더욱 멍들게 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을 탓하기 전에, 빈곤층과 결손가정을 마치 빈민수용소에 몰아넣듯 한 곳에 살게 하는 방식의 잘못된 영구임대아파트 정책이 더욱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누구라도 불시에 재산과 부모를 잃는 처지가 될 수 있다"면서 자신의 넋두리가 '영구임대아파트는 살 곳이 아니다'는 편견으로 비취지지 않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김희승 기자

반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아빠도 없고 가난한 애랑 어울리면 나쁜 것만 배운다고. 하지만 나는 네가 좋아. 그러니까 신경쓰지 말고 같이 잘 지내자." 그날 이후 영식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다.

"강서구와 강남구, 노원·강북구에만 서울시내 영구임대주택의 80% 가량이 몰려있어요. 대표적인 중상층 이상 거주지역에 이렇게 영구임대주택이 밀집해 있다보니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많죠. 영구임대주택 주민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심각한 수위에 이르고 있어요. 영구임대주택단지에 가보면 어른들은 대낮부터 술마시고 행패부리고, 아이들은 가출해 학교를 그만두고 본드 불고 술 마시고 하는 모습을 다른 곳보다 자주 보게 되구요.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슬럼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사회복지관 관계자의 말이다.

중학교 1학년생인 선희(13·여·가명)는 학교를 오갈 때 가까운 아파트 단지 입구 쪽을 통하지 않고 한바퀴 돌아 단지 뒤쪽의 개구멍을 이용한다. 영구임대주택단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다.

선희 엄마는 얼마전 복지관을 찾아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눈물지었지만 선희는 그날도 개구멍으로 등교했다.

지난달 29일 밤 수서동 주공1단지에서 만난 윤철(16·가명)이는 지금 '철가방'(중국집 배달원) 일을 하고 있다. 그와 엄마, 형 세식구인 그의 가족은 생활보호대상자다. 그렇다고 가정형편이 나빠 학교를 그만둔 것은 아니었다.

봉천동에 살 때만 해도 공부를 꽤 잘했다. 그러나 이곳으로 이사온 뒤부터 성적이 푹 떨어졌다. "애들이 '영구, 영구'하면서 놀려요. 아버지도 없고 웃도 안갈아 입어 냄새나는 애라나요. 잘사는 집 애들을 두들겨 패주다 정확도 몇차례 당했어요. 이젠 귀찮아요. 그래서 요즘은 '영구'끼리만 놀아요." 자장면 배달용 오토바이에 기대어 담배를 입에 문 채 내뿔듯 말한다. 아직 애티를 벗지 못한 그의 모습에선 어느새 깊게 아로새겨진 계층의 벽에 대한 절망감이 물씬 묻어났다. 그래도 그는 월급 80만원중 40만원은 엄마에게 주고 나머지는 1백25cc 오토바이를 사기 위해 꼬박꼬박 저축하는 '악버러'다. 아직 모든 희망을 버리지는 않은 것 같았다.

이제훈 김희승 기자

□ 어느 '영구'의 이야기

"일부 선생님은 없는집 애들 대놓고 차별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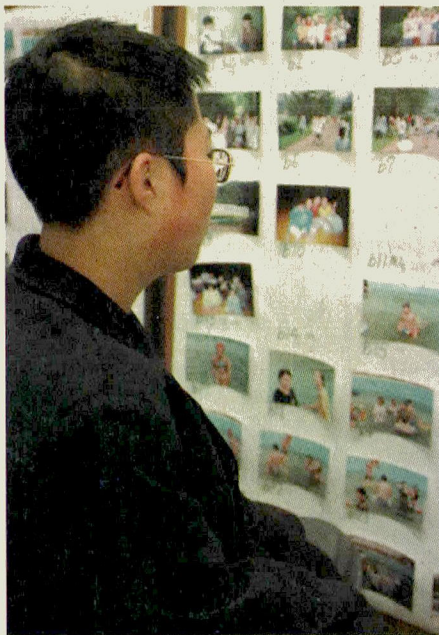
병철(16·오공고1년 자퇴·가명)이는 요즘 끊었던 담배를 다시 입에 대기 시작했다. 고대하던 사공고 입학이 좌절된 데다 아버지의 술주정까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무면허로 오토바이 폭주를 하다 사고를 내는 바람에 구속돼 1년간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나왔어요. 부득이 학교도 자퇴했지요. 3개월간 구치소에 있으면서 '이렇게 살다간 아버지처럼 평생 막노동판이나 전전하다 죽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출소하면 마음 잡고 자동차 기술을 배우려고 사공고에 입학 신청을 했는데 전과 사실 때문에..."

병철이네는 4년 전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운영하던 과일가게가 불에 타버려 보상도 제대로 못받은 채 빚쟁이에 쫓겨 이곳 강서구 가양동 영구임대아파트로 이사왔다. 그날 이후 아버지(50·노동)는 술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고, 어머니(50)는 심장병을 얻어 수시로 병원 신세를 져야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병철이는 전학온지 5개월만에 처음으로 가출했다.

"하루는 우리 반에서 돈이 없어졌는데 담임 선생님이 임대아파트 사는 학생들만 세워



놓고 주머니를 뒤졌어요. 담임 선생님을 골탕먹이기로 작정하고 다음날 친구 3명과 가출을 했어요."

이때부터 병철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기 시작했다. 중학교에 진학한 뒤

에도 푹하면 집을 나갔고 갈수록 가출 기간도 길어졌다.

"수업 시간에 어떤 선생님들은 '임대아파트 사는 놈들한테 뭘 바라겠니'라며 노골적으로 우리를 무시했어요. 일반 아파트에 사는 범생이들만 감싸고 돌았죠. 그런데 집에 가면 선생님 말씀 안 듣고 공부 안 한다고 푹 하면 때리고... 당시에는 학교나 집이나 가기 싫은 건 똑같았어요."

집을 나간 병철이가 갈 곳은 많았다. 병철이는 주로 가리봉동 유흥가에서 술 손님을 호객하는 소위 '빠끼' 생활과 밤이면 폭주를 즐길 수 있는 중국집 배달일을 즐겨 했다. 벌이도 쓸쓸했다. 중3 여름방학 때는 가출한 2학년 여중생과 마음이 맞아 구로역 근처에 자취방을 구해 2개월간 동거를 하기도 했다.

병철이는 올해초 중학교를 무사히(?) 졸업했다. 학칙에 따라 자신과 같은 '잔바리'들을 모두 퇴학시키면 졸업할 학생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범생이들 사이에서 자랐다면 나도 범생이가 됐을 걸요."